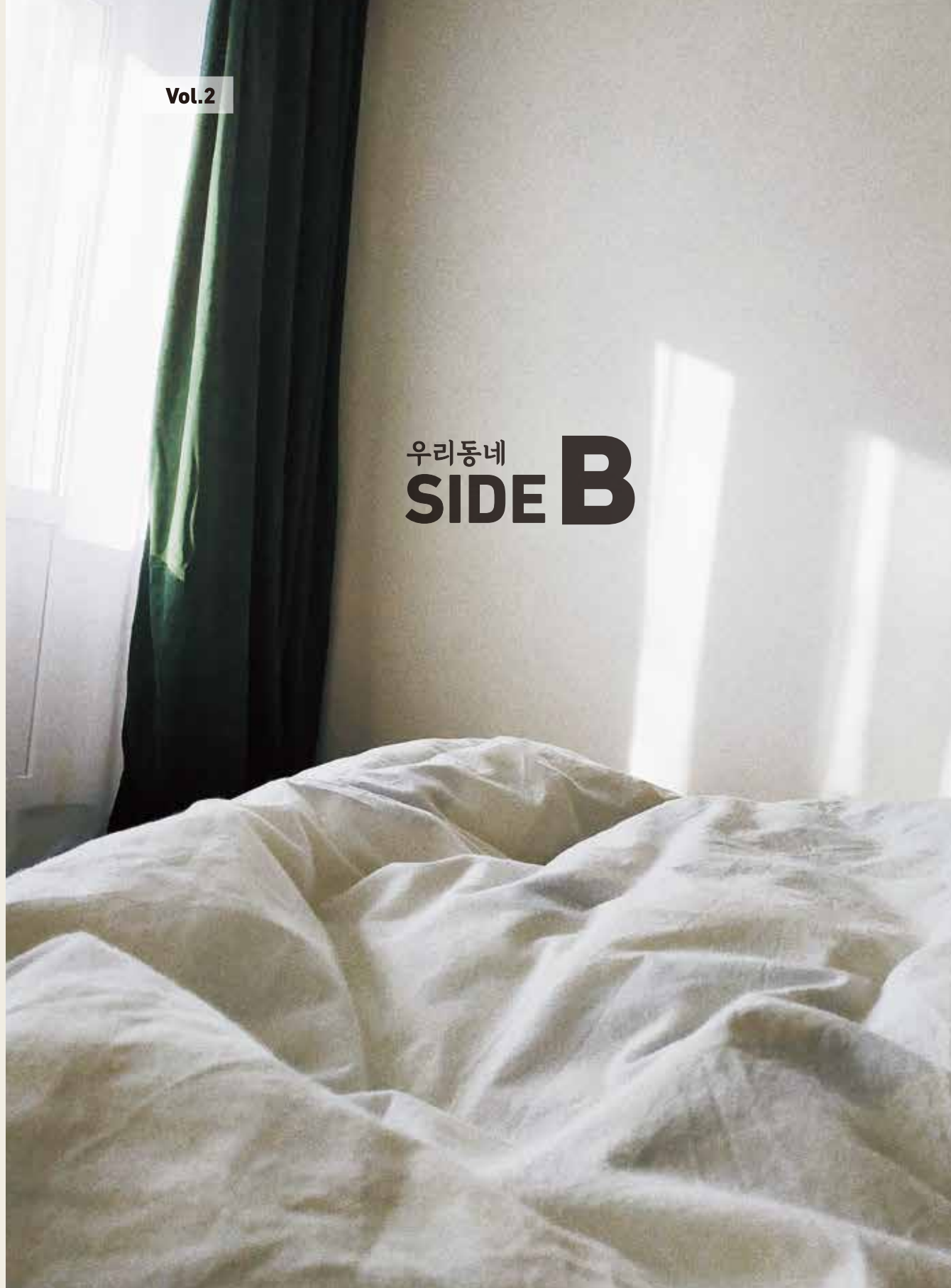
카페베네의 매거진
우리동네 Side B

햇살이 비치는 작은 골목길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나날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보통의 사람들

하지만 그 이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소중한 이야기들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베네의 동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우리동네 Side B를
산책하듯 천천히 훑어주세요

CAFFE BENE



우리동네
SIDE B

Editorial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내밀어 악수를 건네는 것의 유래가
자신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리운 사람과의 소중한 만남은 자제하고
옛날 사람들이 경계를 풀기 위해 건넸다는 간단한 악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외롭고 척박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한 해이기도 했죠.

힘들었던 지난 2020년,
카페베네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따뜻한 솜이불 같은 인사를 건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서
이 한 권의 잡지를 엮었습니다.

어떤 말로 따스함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
문득 며칠 전에 본 철새 무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열을 맞춰 사이좋게 날아가던 철새들 중
한 마리만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외롭게 헤매더군요.
혼자 저대로 길을 잃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서가던 새들이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철새를 기다린 후
다시 대열을 맞춰 날아갔습니다.

그 포근한 장면이 유리잔에 묻은 지문처럼 마음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한겨울 칼바람도 견딜 만해지고
어려운 시기도 어떻게든 함께 넘어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여서, 올겨울도 참 따뜻합니다.

–
편집장 류 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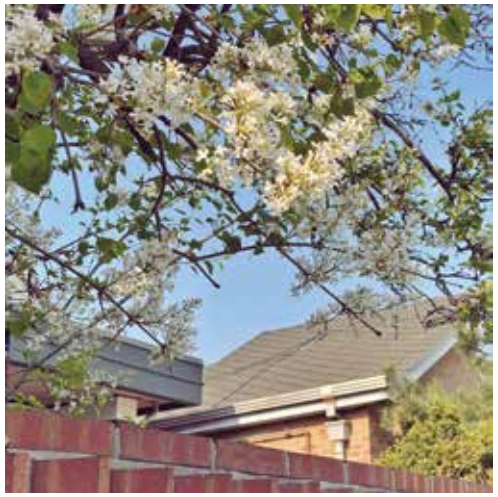
올겨울도
우리가 '함께' 라서
참 다행이에요

바쁜 당신을 대신해
산책을 좋아하는 베네캣이 부지런히 온동네 골목길들을 누비며
여러 카페베네 매장들을 둘러보고 왔어요

우연히 지나칠지
오래 머무는 곳이 될지,
당신과 그 동네가 맺게 될
인연의 깊이에 대해선 함부로 짐작하기 힘들지만요

그곳에 닿게 된다면
카페베네 안에서 마음의 안식과
다리의 휴식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동네 카페베네,
지금부터 함께 둘러봐요.



게으른 고양이처럼 유난히 느릿하게
눈이 떠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벅 저벅 힘차게 골목 위로 걸음을 옮기고
매일 인사하던 강아지와 눈 맞춰 인사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푸른빛이 감도는 나무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가고 싶어도 닿지 못하는 곳들이 자꾸만 쌓여
여전히 조금 답답하고
갈수록 지쳐만 가는 요즘

조금만 유심히 둘러보면,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일상의 존재들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요

매일 인사 나누는
이 작은 풍경들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상입니다.

#카페베네삼송역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34 1층

암사 역사공원에서는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웅장하고 장엄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됨' 이라는 건
어른의 팔로도
한 번에 다 안을 수 없는 나무처럼
한없이 넓어진다는 것,
이야기의 역사가 두텁게 쌓인다는 것.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암사동에서 새삼스레
시간의 두께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나무의 뿌리가
그 끝을 드러내지 않아
육안으로는 깊이를 짐작할 수 없듯

우리도 지나간 시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곳의 나무를 바라보는 것으로나마
어렴풋이 시간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카페베네암사롯데캐슬점
(암사동 유적지까지 도보 761m / 11분)
서울 강동구 고덕로 89

'커피'와 '강릉'
이 둘 사이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전파가 흐르고 있다고 해요

고유하면서도 강렬한,
이 부드러운 파동은
강릉 안목 해변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흘러가
부드러운 바닷바람처럼 살짝 닿곤 하죠

그래서,
언제나 만나고 싶은
강릉 바다와 커피

매일 봐도
매일 마셔도
좋은 바다와 커피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온
강릉 바다의 물결치는 파도는
특별한 오늘의 낱말이 되어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넵니다

#카페베네강릉안목항점
강원 강릉시 경강로 2663

누군가에게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한 시절이 정차해 있는 곳

매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여행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다리 옆으로는
문화역서울 284가
그 맞은편에는
미술 작품 같은 서울스퀘어와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네요

봄에는 장미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수국이 조명처럼 켜지는
서울로 7017도 빠트릴 수 없죠

서울역을 마주하고
높이 뻗어있는 나무와
건물숲 사이를 지나다 보면
기차를 타지 않고도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CaffeB (카페비)
서울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까지 513m / 도보 7분)

회색빛 도시에서
검은 잉크와 하얀 종이에 묻혀
잠깐 잊고 지내던 계절의 감각

울산 정자 해변이 추는
푸른 빛깔 파도의 춤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깨워 봅니다

파도가 찰랑일 때마다
데굴데굴 구르는
자갈 소리가 좋아서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돼요

머리를 흩뜨려 트리는
부드러운 바람의 결이
나른해서 눈을 감게 돼요

그럼에도
푸른 바다의 노래는 계속 되니까

그럼에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은 계속 됩니다

#카페베네울산정자해변점
울산 북구 동해안로 1615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골목길은 없듯이,
우리의 인생길도
저마다의 사연으로 특별합니다

오늘은 성수동 직장인 A씨의
하루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어떤 하루를 보내었길래
어깨는 추욱 쳐지고,
얼굴에는 저렇게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낀 걸까요?

성수동 뚝섬 골목길 사이로
터덜터덜 걸어들어가는
모든 직장인들이여!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쌉싸름한 커피가
그대의 하루를 위로해 줄지니
지금 당장
맛있는 디저트가 이끄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보라!

#성수동카페베네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5 1층

'즐겨 찾는 카페의 바리스타에게 다가가
친구들과 수다 떨 듯 편안하게
커피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안 점장
現 성수동 카페베네
前 커피아카데미 강사, 바리스타 강사

Q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수동 카페베네가 오픈한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요.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정확히 성수동 카페베네의 오픈 일이 9월 1일이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이네요 벌써. 우선 두 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의식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고객님들께 변화된 카페베네에 대해 표현하는 일을 함께 겸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학습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에 하던 일들과 비슷한 듯,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Q2. 커피에 흥미를 가지게 된, 커피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정말 멋진 바리스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전문성 있는 바리스타에 대한 호기심과 선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커피 그 자체보다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멋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시작한 거죠. (훗날 이분은 저의 바리스타 첫 사수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광고를 전공했거든요. 광고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세일즈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저에게는 세일즈 하고 싶을 만큼의 큰 관심과 애정을 쏟게 만드는 대상이 일찍이 '커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커피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3. 커피 일 시작하신지 벌써 7년 남짓 되셨는데요, 그간 커피아카데미 강사와 바리스타 강사 그리고 KCL(Korea Coffee League) 심사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다면 조금만 들려주세요.

2017년 서울에서, WBC(World Barista Championship)라는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열렸어요. 열 명 남짓 되는 국가 대표 해외 바리스타 분들이 무대에 서서 커피 시연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대회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만 보통 바리스타라고 부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커피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을 바리스타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대를 가득 채운 여러 다양한 영역의 바리스타분들께서 들려주시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 저에게는 무척이나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 무대에 선 모든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고요. 바리스타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저도 커피에 대한 열정과 대회에 대한 욕심이 샘솟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Q4. 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커피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커피의 본질은 음료지만, 2차적으로는 대화의 창구로서의 의미도 그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해요. 커피는 진입장벽이 낮은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큰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잖아요. 바리스타라는 직업도 세계 어느 곳에나 있고, 만나려면 언제든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고요. '사람들과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는 물음표가 떠오른다면 좋아하는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즐겨 찾는 카페의 바리스타에게 다가가 친구들과 수다 떨 듯 편안하게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5. 바리스타에게 꼭 필요한 역량! 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본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레시피나 위생적인 부분에서요.
우리가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고객님에게 너그러운 바리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도 다른 카페를 방문하다 보면 지나치게 차갑게 고객 응대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메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사실 카페에서 구입하는 음료의 가격에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잔을 제공하더라도, 최대한 너그럽고 친절하게 제공하되 기본적인 응대와 안내를 곁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핫플레이스의 성지, 성수동의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 성수동 카페베네의 점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그 포부나 책임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성수동 카페베네에 대한 소개 및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동은 전통적인 수제화나 오래된 공장들이 많은 동시에, 젊은 사람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힙한 동네인데요, 두 가지 다른 매력이 공존하는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의 지역이죠. 저희 매장은, 성수동의 오묘한 동네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면서 세련되고 아기자기한 멋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우리동네 카페베네' 라는 컨셉에 맞춰 아이보리색과 우드색을 이용해 언제든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연출한 매장입니다.
또, 카페베네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메뉴들을 가장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카페베네 인기 메뉴들과 함께, 생소하면서도 색다른 메뉴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특히 저희 성수동 카페베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디저트 메뉴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베네 블랙, 베네 화이트와 같은 스페셜티 커피와 함께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삼각김빱, 샌드위치 등의 간식들도 늘 비치되어 있습니다.

Q7. 성수동 카페베네의 베네지기가 되시기 전에, 호주에 계셨었다고 들었어요. 그곳에서도 커피 일을 하신 건가요?

네네, 잠깐 6개월 정도 있다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면서, 타의적인 이유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에도, 국내에서 줄곧 커피에 대한 일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커피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영업 분들과 친해지면서 판매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볼 수 있었는데요, 한때는, 온라인숍을 운영하는 생두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아서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커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수록 어느 순간 커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나 본연의 것들과는 차츰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는, 호주에서 커피 유학을 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귀국을 하게 되긴 했지만 이렇게 성수동 카페베네의 베네지기가 되어서 새로운 고객님들을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되어 참 기쁩니다.

Q8. 호주는 커피 애호가들의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호주의 커피 문화는 어떤가요?

호주 사람들은 커피 문화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커피를 소비하는 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요. 특히 고객과 바리스타 모두 자국의 커피에 대한 자부심을 갖추고 있죠.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우리나라 커피가 제일 맛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각자 좋아하는 단골 카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하루에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시 세끼 챙겨 먹듯 커피를 마시는 거죠.
커피의 종류와 옵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편인데요, 우유의 종류만 다섯 가지가 넘을 정도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또 호주에는 독특하게 '베이비치노' 라는 것이 있는데요, '베이비치노' 는 아주 어린 아기 손님들을 위한 스팀우유를 준비해 그 위에 마시멜로를 올려 만든 음료인데 '베이비' 와 '카푸치노' 를 합쳐서 '베이비치노' 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호주에서는, 유년시절부터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카페를 다니면서 커피와 친해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커피 애호가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문화가 계속 세대를 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Q9. 성수동 카페베네는 다른 매장과는 조금 다른 메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수동 카페베네만의 시그니처 추천 메뉴가 있다면, 살짝 알려주세요!**

먼저 저희 성수동 카페베네는 '젤라또가 맛있는 우리동네 카페베네' 라는 귀여운 별칭이 있을 정도로, 여러 종류의 젤라또가 있고, 맛 또한 일품인데요, 젤라또를 넣은 음료와 젤라또를 활용한 스페셜 아포가토 메뉴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서 젤라또의 새롭고 다양한 맛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커스텀 젤라또 플로트', '커스텀 젤라또 쉐이크' 는 저희 매장의 가장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메뉴죠.

커피 메뉴 중에서는 성수동 스페셜 커피를 빠트릴 수 없는데요, '베네 블랙', '베네 화이트' 모두 호주식 커피를 참고해 제조한 메뉴로 스페셜 커피를 이용해 만들죠. 호주식 커피는 다른 커피보다 양이 조금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미국식 커피와 이탈리아식 커피를 결합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시고 미국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물의 양은 줄이되 커피 맛은 진하게 남긴 '롱블랙' 형태의 성수동 스페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Q10. 지금껏 7년간 쉬지 않고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 바리스타 정지안으로서의 향후 모습들도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의 바리스타를 꿈꾸고 계신가요?**

단기적인 목표는 성수동 카페베네를 보다 더 많은 분들께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는 아지트로 인식시켜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매장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매장 책임자로서의 바리스타를 꿈꾸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커피를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찾고 싶습니다. 사실 커피에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커피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실 수 있도록, 로스팅이나 브루잉 등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네요.

오래된 Tape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랠 듣고만 있게 돼

♪ 김동률 - 오래된 노래

사각 사각..
손글씨를 꾹꾹 눌러담아 라디오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던 그때 그시절.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좋은 음악' 몇 곡은
추운 겨울엔 따뜻한 라떼처럼, 여름엔 아이스커피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또 어떤 음악은 지나간 시간의 냄새와 그때의 온기를 불러오기도 하고
상처 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따분한 일상에 소소한 의미를 더해주는 한 곡의 힘!
그래서 오늘은 음악 매니아 '베네캣 DJ'가
Side B 청취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곡을 준비했다고 해요.

Hey DJ,
지금 바로 뮤직 스타트~!

서울시 강동구 김OO (25세)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독서실에서 공부하기도 꺼려져 집에서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쩍 답답함과 무력감을 크게 느끼는 요즘인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무엇 하나 티끌만 한 것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자꾸 별거 아닌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걱정에 걱정을 만드는 걸까요
제 몸에 심어진 나쁜 걱정 DNA가 훨훨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며칠째 기다리는 택배가 있는데 내일은 꼭 도착해서
저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 옥상달빛 - 걸어가자
구원찬 - 슬퍼하지마
요조 - 내가 말했잖아

충청북도 옥천군 박OO (40세)

오늘 회사에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직장 생활을 12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네요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퇴근 직전까지
심장이 쪼그라드는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서야 퇴근하는 길입니다.
내 몸이 온종일 힘들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휴..
배에서는 꼬르륵 .. 어깨는 10kg 쌀가마를 맨 듯 천근만근.
집에 도착하면 어제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훌훌 털어내야겠어요
맥주 마시면서 들을 노래 몇 곡만 부탁해요 베네캣DJ~

당신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 새소년 - 나는 새롭게 떠오른 외로움을 봐요
커피소년 - 내가 니 편이 되어줄게
디어클라우드 - 네 곁에 있어

우리집 막둥이

아침 저녁으로 꾹꾹이 이백 번
앞발 뒷발 냥펀치 오백 번
캣타워 쩜-프 스무 번

오늘도 너와 함께하는
이 하루에는
말할 수 없는 보드라움과
넘치는 사랑이
뚝뚝 흘러넘치네-

나의 고양이
나의 가족
나의 벗

Slow life를 위한 작은 한 걸음

나만의 반려나무

'반려 동물', '반려 식물'은 많이 들어봤어도
'반려 나무'는 조금 생소하시죠?

'우리 집에 나만의 작은 나무가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정원사가 된 것 같은 기분 좋은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다가오는 따뜻한 봄에는
나만의 반려 나무 한 그루씩 입양해보는 건 어때요?

고무나무

윤기가 나고 단단한 넓은 잎과
노란 무늬가 돋보이는 고무나무는
공기 필터 나무라고 불릴만큼
정화 능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특히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뛰어나
집들이 선물로도 안성맞춤이랍니다

올리브나무

행복, 평화, 건강, 장수를 상징하는
올리브나무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 불려요
지중해 연안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풍부한 채광과 따뜻한 온도만 유지된다면
사계절 내내 새순이 자라는 친구랍니다

행운목

행운이 들어온다는 뜻을 지닌 '행운목'.
빛이 다소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라 비교적 키우기가 쉽답니다
꽃이 10년에 한 번 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드물게 피지만 향기는 그 어떤 꽃보다도 좋다고 하네요

잠깐 멈춰 쉬고 싶은 당신을 위한

BOOK LIST

아무튼 식물

〈아무튼 식물〉의 저자 임이랑은 식물을 기르는
애틋한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꼭 필요하다는 기분이 소중하다"

저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밤이면 테라스에
불을 켜고 멍하니 흙을 만진다고 해요
또 뿌리가 많이 자란 식물들을 들어내
큰 화분으로 옮겨주거나 화분을 닦기도 하고요

이렇게 식물을 돌보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의 품과 마음의 품이 함께 듭니다

일상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식물을 기르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저자의 조용한 평화를 가만히 따라가봐요

Comment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반려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현실로 바꿔보고 싶은 독자 분들께 추천합니다

하루 5분의 초록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나무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이름 없는 수많은 나무
들 중 하나였지만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는
이름 모를 나무에 이름표가 하나씩 생기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저자는 도시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시 나무 30그루를 소개하고 있어요.
또, 그 나무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떤 것들을
관찰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친절하고 다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나무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
을 쏟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분 좋은 초록빛
희망을 품어봅니다.

Comment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처음 보는 나무와 꽃 이름이 궁금해서
시시때때로 휴대폰 어플을 뒤적이는
식물 덕후 독자에게 추천해요.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안내서

고양이 작가로 유명한 '이용한' 작가와
한국고양이보호협회가 함께 손을 잡고
집필한 길고양이 가이드북,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안내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랑스러운 길냥이들과
캣맘 & 애묘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따뜻한 고양이 책이에요

이용한 작가가 직접 촬영한 길고양이 사진과
일러스트레이터 봉지 작가의 귀여운 그림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길고양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Comment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길냥이들에게서 시선과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양이들을 보며 '심쿵'하는
애묘인 독자분들께 추천합니다.

고양이 육아 백과

'나만 고양이 없어, 나만 냥집사 아니야.'

징징거리던 시절을 지나,
어렵게 고양이 집사가 되었는데
막상 어떻게 돌봐줘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초보 냥집사 분들을 위한
국내 최고 고양이 육아 백과 사전!

고양이를 월령별로 구분해
각 월령에 맞는 고양이 특징과
케어 방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아기 고양이부터 노령묘까지,
고양이 입양과 준비, 육아, 질병 등의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니
초보 집사 분들께 특히 아주 유용하겠죠?

Comment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사랑하는 나의 고양이와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집사 독자분들께 추천합니다.

Famulus

후원 문의 안내
E-mail: hugh@famulus.co.kr
Phone: 070 8285 5481

(※ 파물러스는 전국에 있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육원을 짓는 소셜벤처

Famulus

인스타그램 @famulus_official
홈페이지 www.famulus.co.kr

파물러스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재정 자립과 유기동물 보육원을 만드는 소셜 벤처입니다.

'반려동물'이 '애완동물' 보다 익숙해진 지금도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는 1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한 해 10만 마리.
파물러스는 더 이상 소모되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길 바라며
개농장, 불법 브리딩 시설이 사라지도록 유기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고
더 나은 반려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 반려동물이 진열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유기동물 보육원을 통해
기존의 입양, 분양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파뮬러스에서 가족은 이렇게 만납니다!

How to make a family in Famulus

Step 0. 고민과 책임

먼저, 고민해주세요

깊은 고민 끝에 생긴 무한한 책임감이 생긴
당신만이 파뮬러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Greeting Day (1일)

파뮬러스의 미션과 비전을 잘 읽어주세요

5주간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만 지원해주세요!
함께 고민을 가져가요!

모집 일정에 맞게 지원해주시고 꼼꼼히 입력해주세요

파뮬러스의 연락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이내에 연락 드릴게요!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파뮬러스 본사로 방문해주세요

파뮬러스의 가족이 되기 위한
귀중한 소개서예요!

파뮬러스 팀과 직접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요

1시간 가량의 면담으로
서로를 알아갈 시간을 가져요!

이문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프로젝트

이문냥이 프로젝트

인스타그램 @imunnyangi
트위터 https://twitter.com/imunnyangi

**'이문냥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새 가족이 되어주세요'**

서울시 이문동 재개발구역에서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이문냥이 프로젝트〉

구조된 고양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행복을 안겨줄
집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양, 임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문냥이 프로젝트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후원 문의 안내
후원 계좌: 9003-2541-5284-5
MG새마을금고 / 예금주: 문성실(이문냥이)

To. 카페베네
(성수동 베네 사서함)

여느나 지금이나 많이 애정하는 카페베네.

제가 대학 새내기이던 시절,

엄마 회사 옆 건물의 카페베네 매장을 자주 갔었어요.

가을 즈음에 같이 방문하면, 엄마는 늘 따뜻한 유자차를 드셨지요.

사실 그 때의 전 커피만 마셨던터라 아직 유자차의 매력을 몰랐답니다.

그런 제가 어느덧 직장인이 되었고,

나름 씩씩하고 당차게 사회 생활을 하겠노라 다짐했건만..

인간관계에 치이고, 불합리한 일에 마음앓이 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기분이 참 우울하더라구요.

그렇게 다소 의기소침했던 어느 날,

외부에서 점심을 먹고, 무심코 들어갔던 카페베네.

오랜만의 방문이었지만 따뜻한 감성의 인테리어가 추억에 잠기게 해주었어요.

'..... 나도 유자차를 한 번 마셔볼까?'

테이블 위의 향긋한 유자차를 보고 있자니

늘 한결같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이 찔끔 났답니다.

'그래, 언젠간 오늘 같은 날을 떠올리면서 웃는 날이 분명 올 거야!'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따뜻한 유자차를 호호 불어 마시며 지친 제 마음을 달래주었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때의 유자차의 향기를 잊지 못 한답니다.

베너랑 (카페베네 서포터즈) 17기 이은송님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어요.
커리어우먼을 꿈꾸며 학창시절을 보냈던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카페였던 카페베네에 자주 가곤했죠.

아직도 기억나요,
큰 카페에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한 손에 아메리카노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모습과
그 모습이 닮고 싶어 잘 먹지도 못 하는 쓰디쓴 아메리카노를 사먹던 제가요!

그땐 마냥 쓰게만 느껴졌던 아메리카노였는데,
어른이 되서 다시 마주한 카페베네에서 아메리카노는
고소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벌써 어느덧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딛을 순간이 다가온 지금,
어린시절 꿈 많던 저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위로 받기 위해 오늘도 전 우리동네 카페베네로 향합니다.

쓰디 쓴 아메리카노가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되었고
카페베네와 저는
각자의 꿈을 간직한 채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너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해졌어
함께 하는 모든 시간 동안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만 줄게

"오늘도 산책 가자, 우리"

작은 나뭇잎으로는
도무지 숨겨지지 않는
노란 빛깔의 가을 하늘

마른 가을 햇살에
우울한 기분과 답답한 마음들을 말려보세요.

아-
볼수록 참 포근한
오후 가을 햇살

슬기로운 차(茶)생활

글 이보라
(a. k. a. 베네지기)

바쁜 일상 속, 어질러진 책상 위로 쌓여만 가는 빈 커피잔들.
'커피는 조금 줄이고, 차를 마셔보자' 생각하지만
어떤 차를 마셔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잠이 안 올 땐?

캐모마일

불면증, 신경통, 류머티즘 등의
치료제로 유럽에서
수백 년 전부터 쓰였던 차예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잠을 설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상태라면
캐모마일 한 잔과 함께
한 템포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긴장을 풀어주고 싶다면?

라벤더

경직된 근육을 이완해주며
심장을 진정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에요. 두통이나
편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 잠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며
라벤더 향을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피로가 쌓였을 땐?

히비스커스

예쁜 색감과 새콤한 맛으로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주는
히비스커스!
다량의 구연산이 신진대사를
촉진해 육체 피로를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눈의
피로도 풀어준답니다.

목이 칼칼할 땐?

페퍼민트

톡 쏘는 특유의 향이 호불호를
가르긴 하지만 한번 빠지면
계속 먹게 되는 페퍼민트.
청량감이 가장 큰 매력인
페퍼민트의 멘톨 성분은
개운함을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갈증을 해결해주고
감기, 신경통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YANGSAN

개울물 소리
귀뚜라미 소리
낙엽 밟는 소리
갈대가 흩날리는 소리

이 모든 건, 가을이 걸어오는 소리.

경상남도 동남부, 양산에도
가을 물감이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채로
화려하게 물들어가는
멋쟁이 도시는 아닐지라도

단조로운 빛깔로
여러 가지 멋을 내는
소박한 정취가 담긴 곳이에요

이곳, 양산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봅니다

쉿– 걸음을 멈추니
가을이 들려오나요?

#카페베네양산터미널점

경남 양산시 양산역1길 7 107B

SEOUL

언제나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봉천동 골목골목을 산책하다 보면
잠시 잊고 지내던 추억들이
되살아납니다

골목 시장에서 500원치
부추 한 단 사서 무쳐먹고
비 오는 날에는 감자전을 구워 먹고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와
사이좋게 나눠먹던 맛있는 추억

골목 터줏대감인
철물점과 미용실의 낡은 철문도
괜히 정겹게 느껴지는 봉천동 골목길

푸근하게 서로의 살을 맞대고
옆집 저녁밥 냄새를 맡으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흘려보내는 사람들
가파른 언덕과 빛바랜 벽화들

여기는 봉천동입니다

#카페베네서울대역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0 게림빌딩

IKSAN

어느 봄의 오후
다리 짧은 강아지와
다리 긴 여자가 함께 걸어갑니다

다리가 긴 여자는
다리 짧은 강아지의
속도에 맞춰 걸음을 늦춥니다

오랜 산책에 지친 여자가
잠깐 벤치에 앉으니
다리 짧은 강아지
가만히 그 곁을 지켜줍니다

꿈–뻑 꿈뻐억–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둘은 다시 발맞춰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다리 짧은 강아지가
폴짝폴짝 뛰어갑니다
강아지와 긴 끈으로 연결된 여자도
같은 속도에 맞춰 폴짝 뛰어갑니다

그렇게
둘에게만 축복처럼 내리쬐는
봄의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카페베네익산영등동점

전북 익산시 무왕로11길 9
(익산시민공원까지 459m / 6분)

NAMYANGJU

#카페베네별내메이호텔점

경기 남양주시 별내2로 70 1층 101호
(별내카페거리까지 400m / 도보 5분)

별이 내리는 마을,
'별내동'의 초여름을
단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다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듯
여름 햇살에 반짝거리는
노랗고 작은 꽃들이
별내동 곳곳을 감싸고 있다는 걸

살랑살랑 불어오는 초여름 바람과
눈부신 햇살 속에서
정처 없이 걷다 보면
시간이 마치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걸

선선하게 부는 여름 바람이 좋아요
내 옆을 나란히 걷는
유월의 당신이 좋아요

지금, 우리 둘 틈 사이로
한낮의 별들이 한가득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냄새로
뭉근하게 기억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코끝으로 전해지는
부산항 바다 냄새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책에
깊게 베여버린 빛바랜 냄새
생선 비린내와 제철 과일의 달달한 향

BUSAN

시간이 흘러도 늘 변치 않는
오랜 친구 같은 남포동 골목에는
오늘도 여전히
지나간 시간과 고유의 냄새가
사이좋게 쌓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남포동은
또 어떤 냄새로 기억될까요?
여기는
사람 냄새 진득한 남포동입니다

#카페베네부산남포점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19

SUWON

옷차림이 얇아지니
발걸음도 덩달아 살–랑 살랑
가벼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상'이라는 관람차가
아주 서서히 움직이다가
순간, 멈춰진 것처럼 포착된
순간을 우리는 계절이라고
기억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꼭대기에 있을 때를
여름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아직은 봄입니다

햇살이 궁금해 세상에 나왔던 어린잎들은
꽃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나뭇가지는 자신의 껍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열매들은 각자 내일의 희망을 품습니다

따뜻한 햇살 사이로
푸른 나뭇가지와
파란 하늘이 교차하는 것이,
여지없는 봄날입니다.

#카페베네수원매탄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16
(광교호수공원까지 1km / 도보 15분)

굳세나

카페베네 브랜딩 프로젝트 협업작가

Goodsena with bene

"'카페베네'는 저에게 한없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Q1. 안녕하세요 굳세나 작가님.
본인 소개와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한 그림 위에 자연을 얹고 글씨를 쓰는 굳세나입니다.
카페베네와는 2년 전에 인연을 맺어
여러 프로젝트들을 (MD 기획, 프로모션 이벤트) 함께 진행했고,
지금까지도 그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멀리서 제 일산 작업실까지 방문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뵈어도 참 반갑고 좋습니다. (웃음)

Q2. 카페베네 외에 함께 협업했던(혹은 협업 중인)
브랜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 길게 함께 일한 건 LG U플러스와 2년 정도 작업했고요,
유한킴벌리는 현재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SK와 카페베네는 제가 작년에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의 두 축이었어요.
아 그리고, 일반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 중에서는
CBS 방송국에서 이해인 수녀님과 6개월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Q3. 본격적으로 전업작가가 되신 건 언제부터인가요?
캘리그래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캘리그래피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대중화/보편화 되기 전이라, 많은 분들께 꽤 생소한 분야였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캘리그래피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 '어? 저게 뭐지?' 하고서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그게 캘리그래피였어요.

그러던 중 본격적으로 캘리그래피를 처음 시작한 건
당시에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캘리그라피 강좌가 생기면서부터인데요,
1년여 남짓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캘리그래피를 배우던 중에
저를 가르쳐주셨던 담당 선생님께서 일이 생겨 강좌를 그만 두게 되시면서
그 자리를 저에게 제안해 주신 거죠. 반에서 꽤 우등생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시에 저도 한창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지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캘리그래피로 제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Q4. 그럼 손글씨에 흥미와 재능을 느낀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재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쑥스럽고요 재능보다 흥미를
느꼈을 때를 말씀드리면 제 작업이 아픈 분들이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닿는 걸 보면 그게 제 작업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흥미가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굳세나
작품 너무 좋다. 덕분에 위로 받았다'고 말해주시면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에너지를 얻게 돼요.

Q5. 주로 작업의 영감은 어디서 얻는 편인가요?

영감은 쉴 새 없이 제 머릿속에서 움직여요. 어쩔 땐 꿈에
나오기도 하고요. 아침에 눈뜨자마자부터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평소에는 책이나 텍스트를 통해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문장은 읽자마자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책 한 줄이나 다른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들을
보면서 보통 영감을 얻을 때가 많아요.

아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많은 소스를 얻는데요.
대화를 할 때 순간적으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열 명이 모이면 열 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열 명이 살아온 시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Q6. 작업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감'이요.
제가 직접 경험했고,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잘 전달됐으면 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진심을 담은 만큼 보시는 분들도
같은 크기로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고
진심을 듬뿍 담은 작품들일수록 보시는 분들께서 더욱 깊이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세요. 그게 온전히 다 느껴지나 봐요.

**Q7. 카페베네와의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2년이나 되셨죠?
함께 했던 프로젝트,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웃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카페베네
담당자분께서 협업하자고 연락 왔을 때가요. 처음에는 얼떨떨할
정도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그게 벌써 2018년
10월이니까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렇게 인연을 맺은 후로 카페베네와 함께 머그컵, 텀블러,
다이어리, 크리스마스 컵홀더, 크리스마스 소모임 등 다양한
행사와 MD 상품들을 함께 기획했죠.

카페베네 분들이 하나같이 다들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단순히 협업 작업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인연이 오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작업하면서도 너무 너무 좋았고요.
지금까지도 서로 잊지 않고 늘 살뜰히 챙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참 좋아요. 함께 오래 걷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카페베네, 하면 저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랍니다.

**Q8. 카페베네와 함께 작업했던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첫 작업이었던 컵 MD 기획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처음 작업하는 거니까 가장 의미도 깊고,
즐거웠던 추억이 많이 떠오르네요.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작업 과정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인쇄하고
디자인 진행하실 때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티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즐겁게만 작업해 주신 카페베네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참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Q9. 최근 작업실을 일산으로 옮기셨다고 들었어요,
작업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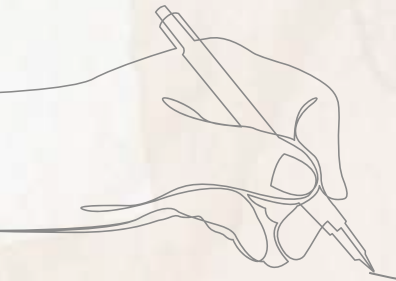
제가 가장 존경하고 많은 배움을 얻었던 선생님께서
이 작업실이 위치한 건물을 쓰셨는데요,
지금은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들어오던 시기쯤에 작업실을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좀 크죠.

그리고 원래는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소모임도 하고,
함께 쓰는 공간을 생각하며 이 작업실을 꾸몄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을 모을만한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고, 저도 적응 기간이 조금 더
지나야 온전히 제 작업실이란 느낌이 들 것 같네요.

Q10. 요즘 작가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역시나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남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얼른 클래스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Goodsena with bene

BENE Interview

월 배달 매출 900만 원 매장의 비밀?

저희 매장만의 배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한유나 점주님
카페베네 오산대점 운영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하게 챙기려고 해요.
이게 배달 매출을 올리는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Q1. 안녕하세요. 한유나 점주님.
간단히 본인 소개와 매장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베네 오산대점을 운영 중인
한유나 점주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 매장을 운영한지는
그리 오래 되진 않았고요, 직장 생활을 15년 정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던 하던 차에,
우연히 지인분을 통해서 오산대점 매장을
양도 양수 받게 되었어요.
제가 운영한 건 6개월쯤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이나 장사 경험이 전무했던 터라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이끌어오고 있어요!

**Q2. 점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오산대점만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 동네 상권 분석을 하며 느꼈던 점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 동네는 배달 라이더 분들이
유난히 많다.〉 두 번째, 〈동물병원이나 펫샵이 많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에 배달 라이더와 동물 병원이 많다는 건
이 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배달 서비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펫프렌들리 매장도 꾸미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워낙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기존에 이 매장을 운영하시던 분도 동네 상권 분석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분은 워낙 이 동네에 오래 사시기도 했고 (10년 가까이)
동네 분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배달을 가능하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됐죠.

**Q3. 고객님과의 유대 관계가 유난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매장을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유대감을 이어나가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요?**

제가 저희 방문 고객님들 백 분 정도는
퍼스널 오더를 대부분 다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샷을 추가하거나, 시럽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손님들이 더 좋아해 주시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손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밝은 에너지와
약간의 서비스가 전부인데 이런 마음을 베풀었을 때
손님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Q4. 운영하고 계신 오산대점만의 특징 있다면?
매장 자랑도 함께 부탁드려요.**

저희 매장이 위치한 동네에 산업단지와 공장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지역적 특성상 여러 다문화 고객님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
편이에요.
생산직 근무하시는 파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분들도 오시고..
고객층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죠.

오산대점의 자랑이라고 하면, 앞서 잠깐 저희 매장 방문
고객님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저희 매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들 정이 넘치세요.
동네 카페다보니 유난히 더 서로 나누고 베푸는 분위기가 형성된
걸 수도 있는데,
먹을 거 가져다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다가다 초콜릿도 가져다주시고 참외도 가져다주시고 빵이랑
과자도 사다 주세요. (웃음)

**Q5. 배달 매출이 유난히 좋은 매장인데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5월달 배달 매출이 900만 원 가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코로나19 이슈로 재난 카드를 많이 쓰실 때여서..
아무래도 지원금 영향이 컸죠.
평소에는 500만 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작은 부분에서
세심하게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특히 배달 라이더 분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가령, 저희가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매장이다 보니
라이더 분들과 마감 시간이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저희도, 라이더 분들도 새벽 3시 마감이에요.)
제가 야간 근무를 서는 날에는 12시 넘어서
오시는 라이더분들께는 따로 에이드 같은 음료를
서비스로 한 잔씩 드려요. 과자 같은 디저트랑 같이요.
늦은 시간에 일하시면 힘들잖아요.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정성이지만, 그렇게 소소하게 챙겨드리면
그 작은 정성 때문이라도 저희 매장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배달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Q6. 오산대점의 대표 간판, '별이'와의 인연이 궁금해요

별이는 이 매장을 처음 오픈하는 날
저와 인연을 맺은 아이인데요.
원래는 길고양이었어요.
오픈하기 바로 전날 비가 왔었는데,
별이가 그날 비를 맞고
여기 가게 앞에 서있더라고요.
다음날 가게를 오픈하고 바로 별이를 입양했죠.
정말 똑똑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사랑스러운 아이에요. 애교 부릴 줄도 알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저희 카페베네의 심볼인
베네켓과도 닮지 않았나요? (웃음)
이미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진지 오래라,
저희 매장 터줏대감이자 인기쟁이랍니다.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Q7. 배달 고객을 위해 따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첫 구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특별히 신경 쓰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사이즈업 음료로 나가고요,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허니브레드도 서비스로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첫 배달을 12월 13일에 시작했는데,
첫 한 달은 배달료를 아예 안 받았어요.
처음에 한 세 달 정도는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빼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쓰자, 배달료로 쓰자,
해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이런 마인드가 장기적으로는
배달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고 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또 시키시고 하니까요.

**Q8. 포장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배달 매출 증가를
위한 꿀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특히 날씨가 덥다 보니 아식으로 빙수를 많이들 시켜
드시는데요, 빙수 포장을 할 때는,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매직랩을 씌우고요, 뚜껑 밑으로 다 집어넣어요 랩을.
그렇게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밑에 바닥이 덜컹덜컹하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밑에다가 에어(뽁뽁이)를 깔아요.

만약에 뽁뽁이가 다 소진되면 냅킨이라도 깔아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위에다가 보냉백과 아이스팩 얹혀서 보내요.
그렇게 포장하면 반경 3km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고객님들을 감동시키는 서비스는
사실 큰 것에서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자잘한 것들부터 챙기다 보면 그게
고객 감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포장을 꼼꼼하게
신경 쓴다든지, 배달을 빠르게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하게 챙기려고 해요, 이게 배달 매출을
올리는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Q9. 특별히 추천하는 오산대점만의 베스트 메뉴가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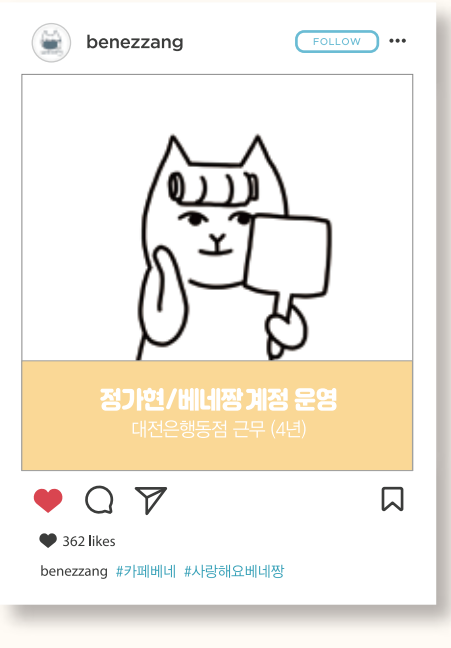
'콜드브루 바닐라 플로트'요. 저희 매장 손님들이
한 번 드시면 반드시 다시 와서 드시는 메뉴 중 하나예요.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생각하는 메뉴 중 하나죠.
'콜드브루 바닐라 플로트'만의 독특한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Q10. 카페베네 오산대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情) 아닐까요. 정 많은 우리 동네 카페.
유난히 정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다른 매장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카페는 언제나 정이 넘치고,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매장이랍니다. 앞으로도 방문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오셔서
오래 쉬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BENE Interview

베네짱 (@benezzang)
집중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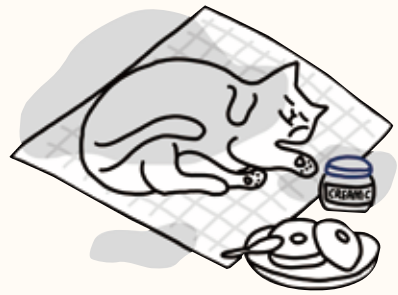


**Q1. 안녕하세요 정가현님.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베네 대전은행동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카페베네 메뉴와 베네캣을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베네짱 정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2. 카페베네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카페베네 대전은행동점에서 제가 2017년부터
일했으니까 벌써 올해로 꽉 채운 4년이 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1년 정도 잠깐 일을 쉬었었거든요.
그러니 일한 기간만 따지면 3년 조금 넘을 것 같네요.



**Q3.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서,
처음에는 미술학도인줄 알았어요.**

앗..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술 전공은 아니구요.
지금은 휴학 중이긴 한데 현재
청소년 교육을 공부하고 있어요.
취미로 그림을 그린 지는 좀 되었지만
전문 기관을 통해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제 그림을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웃음)

Q4. 카페베네 그림 계정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카페베네에 스마트오더 기능이 생겼잖아요.

정말 편한 기능인데, 카페베네 고객분들 중에 이 기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못 쓰고 계시는 분들이참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직접 홍보를 해보고자는 마음으로, 카페베네 그림 계정을 개설하게 되었죠.

Q5. 그럼 그림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물이나, 제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려왔어요.

지금은 아이패드로 그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하얀 종이에다가 손으로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이나 동물보다는, 사물 위주로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취미가 지금의 베네짱을 만들었네요. (웃음)

Q6. 그림은 주로 언제 그리세요?

음, 딱히 시간을 정해 두진 않고요. 일상 생활을 하다가 틈틈이 여유 생기면 그때마다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제 일상 생활 중 가장 활력이 되는 시간이죠.

Q7. 베네짱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계정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인기 인스타그램 계정 중에 짱절미라는 강아지 계정이 있는데요.
그 이름에서 착안을 했어요. '짱' 을 붙이면 모든 게 다 귀여워지잖아요.
우리의 베네캣도 절미만큼 귀여워서, 베네짱이라고 지어봤습니다.

Q8. 베네짱의 카페베네 최애 메뉴는?

음료 중에서는 자두에이드가 제일 좋아요.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게, 자주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또 디저트 중에서는 뉴욕칠리핫도그가 아주 든든하고 알찹니다.
아직 한 번도 드셔보지 못한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제 일상 생활 중
가장 활력이 되는 시간이에요"

카페베네와 함께하는

깨끗한 지구별 만들기 프로젝트

작은 실천으로 크게 누리는 깨끗한
지구별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행복한 지구별,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위드베네캣머그 (R)

용량 : 420ml
가격 : 13,000원

위드베네캣머그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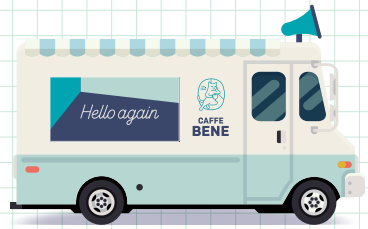
용량 : 520ml
가격 : 16,000원

'위드베네캣머그'로
베네캣과 함께 여유로운 커피 타임과
지구별 지키기를 동시에 실천해보세요!

월간 대국민 커피충전

PROJECT in July

베네카가 쏜다!



안녕하세요 카페베네 담당자님.

저는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명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파주 꼭대기에 있는 시골 학교예요

학교가 워낙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근처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하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곤 급식이 다인데

그나마도 근처 초등학교 급식을 받아와 먹는 실정이라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어요

선생님들 역시 제 손으로

타먹지 않는 아이스커피 한 잔 먹기 힘들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베네카가 쏜다〉 응모 포스터를 보았는데요

저희 어유중학교로 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기 선생님들에게도

너무나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당첨자

한명숙 선생님

**Q.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생님!
〈베네카가 쏜다〉 첫 번째 주인공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연 신청을 해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어유중학교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친자연적인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주변에 편의 시설이나 슈퍼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어도,
여건상 불가능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늘 마음이 무거웠죠.
그러던 중에 마침 평소에 자주 들어가던
카페베네 어플을 통해
〈베네카가 쏜다〉 이벤트를 알게 되어서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어유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신지도 벌써 반년이나 되었는데요,
어유중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학교 소개도 함께 부탁드려요.**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서,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어요.
학생 수도 26명 밖에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학생 수는 적지만 선생님은 또, 전체 교과마다
한 분 이상씩은 계셔야 해서 학생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있죠.
선생님들은 교장, 교감 포함해서 열네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제 간의 관계도 친밀하고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생겼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단 생각이 들어 〈베네카가 쏜다〉에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베네카가 쏜다 오늘 행사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간식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웃음) 정말 감사해요.
저희한테는 정말 빅이벤트거든요.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페베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어유중학교 학생
김진우 학생

Q. 안녕하세요. 진우 학생! 만나서 반가워요.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학교 소개를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유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입니다.
저희 학교는 파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학생 수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선후배 간의 사이가 좋고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모두 친해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들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쉬는 시간에는 같이 화음쌓기 놀이 같은 것도
하면서 (웃음) 서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방과 후 활동과 체험 학습인데요.
저는 참고로 기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어유중학교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후배 사이가 저희 학교만큼 돈독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학생 수가 몇 명 없다 보니까
선후배 사이가 진짜 돈독한 편이에요.

또, 저희 학교에만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특별한 모임이 있는데요.
학생 두 명과 선생님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한 팀처럼 묶여요.
저에게도 아버지 선생님이 있는데요.
저의 아버지 선생님인 이진범 선생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2학년 여학생도 저희 가족인데, 제 학교 동생인 셈이죠.

Q. 이번 베네카 행사 당첨되신 거 축하해요. 소감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일단 학교 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예쁜 사연 남겨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한명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길 와주신 카페베네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두 손 느린 걸음에
마음은 느슨해져만 가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기억의 수풀
이리저리 그 사이를 걷네

지나가는 동네 길고양이
잡을 수 없는 지난 날처럼
쏜살같이 사라져
그 누구도 위로 못 할
이 마음 속을 헤매이네

윤진 – 걷는 마음 中

해외 매장 소개

카페베네 뤼후점

[주 소]
No. 80, Ruihu Street,
Neihu District, Taipei City,
대만 114

대만 뤼후에 오픈한
대만 카페베네 15호점을 소개합니다!

아침 오픈과 동시에
맛있는 커피 향을 따라 긴 줄을 서는
대만 도시 사람들
한국 매장에도 볼 수 있는 익숙한
한국어 간판이 괜히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죠?

메뉴개발팀 전소연 팀장이 알려주는

시즌 메뉴 탄생기

1. 시장 / 트렌드 조사

시즌 메뉴 개발을 위해
매장 혹은 박람회를
방문하거나 관련 서적을
통해 소스를 취합합니다

2. 브레인 스토밍 (컨셉 / 제품 관련)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아이데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각 시즌별 컨셉 회의와 더불어
프로모션 기획 회의도 함께 진행 됩니다

3. 원재료 소싱 및 개발

원재료를 수배하고
전용 상품 개발을 의뢰하거나
필요한 제품들을 테스트 합니다

4. 1차 품평회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솔직하고
날카로운 품평회가
진행됩니다

5. 2차 품평회

1차 품평회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메뉴를 보완한 후
2차 품평회를 진행합니다

6. 메뉴 촬영

POP와 DMB 등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
메뉴의 연출컷 촬영을 진행합니다
(with. 푸드스타일리스트 및 촬영팀)

8. 생산 점검 (공장 방문)

원재료 생산 시
직접 공장을 방문해
품질 관리에 관여합니다

9. 매장 방문

메뉴 출시 후
매장 방문을 통해
매뉴얼 및 오퍼레이션을
점검합니다

[닫는글]

Tolérance(똘레랑스)의 한계 그리고 배려의 중요성

팬데믹(Pandemic)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인용문

① ['강의', 신영복, 돌베개, 2004], ['존재론으로부터 관계론으로', 신영복, 경주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유럽 근대사의 구성 원리는 근본에 있어서 '존재론'임에 비해 동양의 사회 구성 원리는 '관계론'입니다. 존재론적 구성 원리는 개별적 존재를 세계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그 개별적 존재에 실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집단, 국가 등의 개별적 존재는 부단히 자기를 강화해가는 운동 원리를 갖습니다. (중략)

이에 반하여 관계론적 구성 원리는 개별적 존재가 존재의 궁극적 형식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승인합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로 규정하는 것이 관계론적 구성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동양적 사고는 현실주의적이라고 합니다.
현실주의적이라는 의미도 매우 다양합니다만 대체로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②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 이진경, 문학동네, 2020]

억압이나 구속의 부재, 이런저런 선택의 가능성,
이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로 자유로운 삶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를 둘러싼 '자유로운' 제도나 조건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진 못한다. (중략)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삶, 혹은 자신을 포함하는 '우리'라고 불리는 무리의 삶과 결부된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로 인해 이웃한 타자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그것을 위해
자신이 속한 세계를 더럽힌다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후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호모엠파티쿠스가 온다', 최배근, 21세기북스, 2020]

땔감을 구하기 위한 나무 훼손, 경지 확보를 위한 방화, 더 저렴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논리, 개도국의 개발 정책 등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인수공통감염병이 전파될 개연성을 높인다. 에이즈 바이러스나 코로나바이러스 등은 이른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자연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동물이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결과이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19재난 역시 무관하지 않다.
즉 기후변화는 가뭄, 태풍, 지진 등으로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 재난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 기후로 숲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돼 이들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아왔다.

④ [기업핵심가치발표, 2019, 주식회사 카페베네]

카페베네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페베네에는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다.
카페베네에는 소중한 '진심'이 있습니다.

2. 머리말

"먼 훗날 인류는 2020년을 어떤 해로 기억하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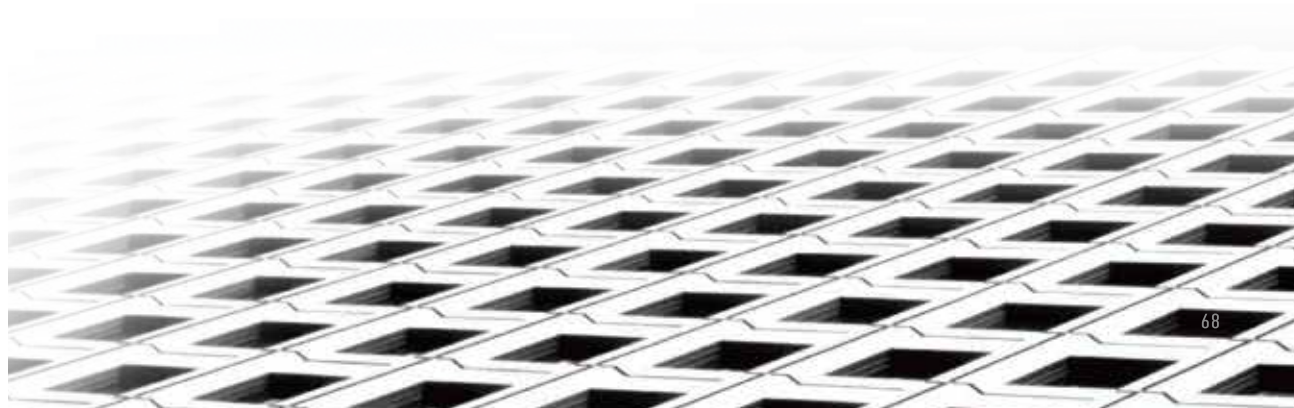
앞으로 써 내려갈 모든 역사는 서기 2020년을 기록할 때,
반드시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인수
공통감염병으로
그 기록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 한해 지구상에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왔고,
그 싸움은 앞으로도 최소한 1-2년간은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우리의 현재 삶을 바꾸어놓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류는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극복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소중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 노력들이 효과를 낸 국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권 국가들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동양은 서양에 비해
열등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인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경제력,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과학 및 생물학, 의학 등
학문의 전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불리는 많은 서구권 나라들이
바이러스 방역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0월 중순에는 유럽에서 재확산이 일어나
2차 팬데믹 상황으로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답할 문제입니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사투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쩌면 인문학자들이 그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 서두에 이미 20년 전에 관계망의 중요성을 역설한 고 신영복 선생님의 글, 진정한 자유의 문제를 다룬
이진경 교수님의 몇 년 전 글,
공감과 초연결의 문제를 다룬 최배근 교수님의 최근 글, 그리고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걸쳐 전 직원들의 참여 속에 제정된
카페베네의 브랜드 핵심가치에 대해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3. 존재론의 산물 '똘레랑스' vs. 관계론의 산물 '배려'

서두에서 소개된 대로 서구 사상의 근본 원리는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이란 개별적 존재를 세계의 기본단위로 인식하고
자기 존재의 무한증식을 기본운동원리로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의
개별적 존재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서, 너와는 대비되는 나,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우리나라, 동식물과 대비되는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더 크게 팽창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개별적 존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얻으려 합니다.

존재론에 대한 강한 믿음은 자기 강화 운동에 근본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로 인해 존재들의 팽창욕과 자기 증식활동에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 거침없는 자유의 결과로 우리가
겪은 일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후에도 끊이지 않는 국가
간의 무력충돌, 자본의 무한증식 결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 그리고
범 지구적 환경파괴입니다. 서구 근대사회가 그 자유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 간의 필연적인 충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만들어낸 윤리적 개념 중 하나가 바로 'tolérance'(똘레랑스)입니다.

똘레랑스는 흔히 관용이라고 번역되지만 보다 쉽게 해석하자면,
'너의 주장이나 입장(종교적, 정치적 입장 혹은 윤리적 준칙)이
내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일지라도 너의 주장이나
입장을 나에게 폭력적으로 강요(intolérance, '앵똘레랑스', 불관용)
하지 않는 한, 나는 그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똘레랑스를 관용으로만 번역하게 되면 자칫 강자의 약자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이해되거나 잘못한 이에게 베푸는 용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똘레랑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도 인정하는 타협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개별적 존재의
자유의지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동일한 원칙하에
인정하는 관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한증식을 할 자유를
인정해온 존재론에게 내려진 마지막 윤리강령 같은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타자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역으로 내가 타자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유도 최대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점이
팬데믹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존재론과 대비되는 동양의 핵심 사상은 '관계론'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춘추전국시대의 무한 팽창욕과
경쟁이 가져다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찌감치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철학적 명제로 떠올랐습니다.

관계론의 근본적 화두는 서양의 존재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 친구 사이의 우정, 형제간의 우애,
군신 간의 관계, 사제지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관계성을 모든
존재의 본질로 규정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설정한 후,
그 이상적인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의
자유를 일정 정도 희생하는 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당연시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배려'와 어느 정도의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반대 축인 상대방, 상대 국가, 혹은 자연에 대한 배려 없이
이상적인 관계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 속에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관계가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한 축인 '나'라는 존재조차도 온전히 존재하기란 힘들
것입니다.

4. 다른 생각이 가져온 다른 결과

'tolérance'(똘레랑스)와 '배려'라는 사상적 기반의 차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함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지침의
준수여부에서부터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양권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개인의
의사 결정이 '자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존재의 자유를 최상위
가치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어쩌면 이러한 주장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이고, 락다운을 통해 자유로운 이동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들에게 명백한 앵똘레랑스(불관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이 초기 단계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심각한
단계에서의 이동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염병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새롭게 인식된 존재론의 한계입니다.

반대로 동양에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며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이후, 동양 사회가 보여준 방역의
상대적 우월성은 지난 이천여 년간 일방적으로 독주해온 존재론에
대한 관계론의 반격이자,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서양의 '
똘레랑스'라는 가치에 동양의 '배려'라는 가치가 반드시 더해져야만
한다는 새로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번 펜데믹 상황을 통해,
'똘레랑스'가 어느 정도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는 존재 자체를 지켜주기엔 충분치 않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유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국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락다운'('Lock-down'; 봉쇄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 존재의 보호를
위하여 연결망 즉 동양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을 최소화하는 임시방편만으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에
배려라는 관계론적 담론을 포함시켜 그 관계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합의된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배려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유일한 국가가
오늘 날의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몇몇 집단의 이기심이 전체의 배려심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서두에 소개한 이진경 교수의 말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바로 이 상황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대중 집회를 하거나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그 자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큰 구속으로 몰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역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합의된 작은 구속,
혹은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과 배려는 우리 모두를
락다운이라는 더 큰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5. 맺음말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모두가 예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변화를
산업 구조, 경제 행위, 여가 활동, 수업 방식 등
눈으로 보이는 행위에 국한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를 지배하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서양은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는 인식,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와 신념은 언제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
성장과 자기발전은 선이고 배려와 희생은 모자란 것이라는 인식,
자연 파괴가 가져올 두려운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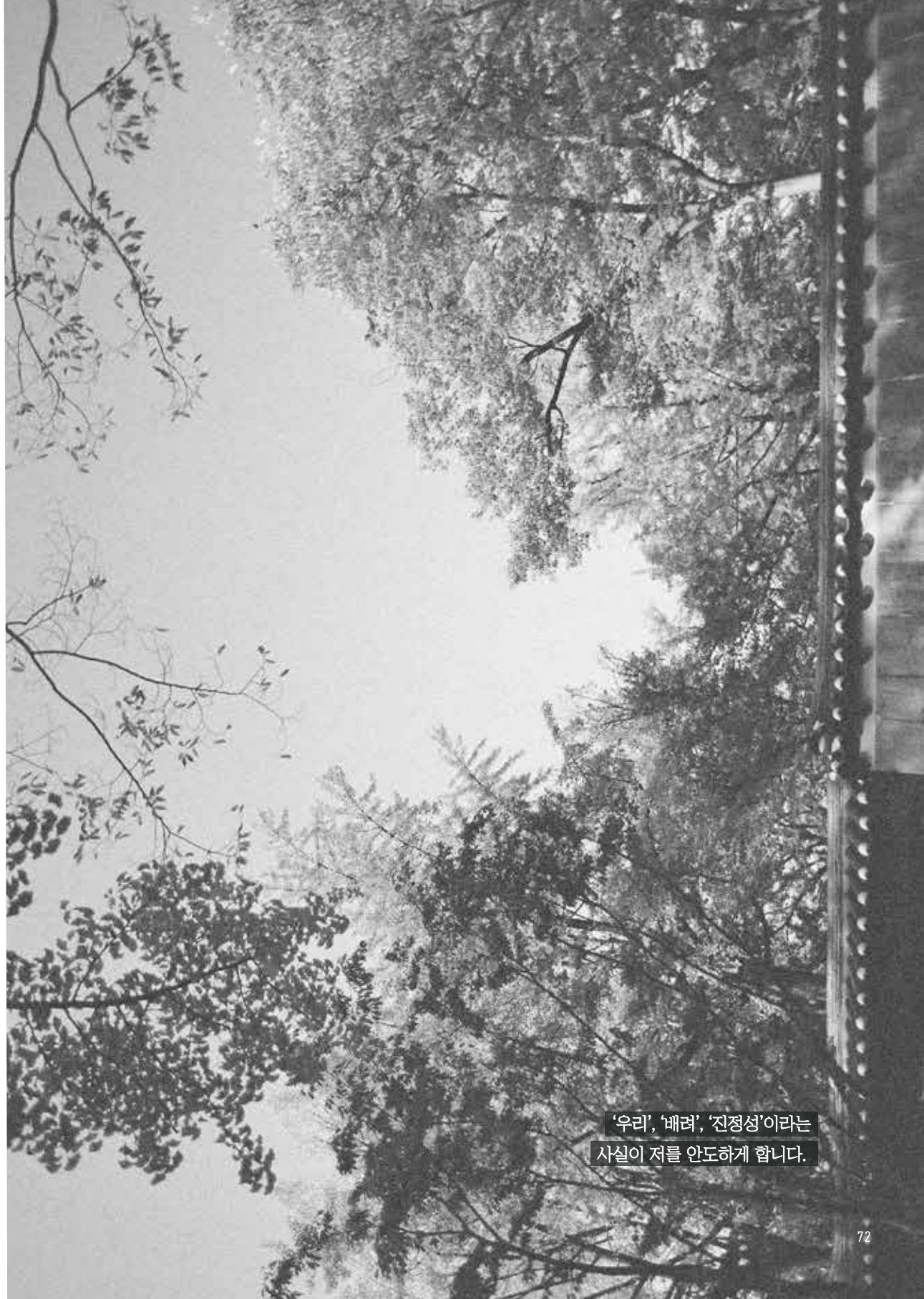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존재에만 치우친 사고는
인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존재는 성숙한 관계 속에서만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인류를 구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타인과 자연에 대한 작은 배려심에서 출발합니다.
성실하게 지속되는 작은 배려심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팬데믹을 막는 데 필요한 건
봉쇄와 차단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연대이며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기에서 구할 가치는
'tolérance'(똘레랑스)에 더해진 작은 '배려'입니다.

카페베네는 2008년 설립된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한때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기반하여 오로지 점포 수 증가와
해외 진출에 모든 것을 걸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기증식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 마음껏 자유를 향유하는 동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가맹점 그리고
고객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고
결국 2018년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
진정성 있는 배려를 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거의 일 년에 걸쳐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우리 회사의 핵심기업가치가
'우리', '배려', '진정성'이라는 사실이 저를 안도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돌아가는 길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지속될 단단한 관계를 선택한 것이지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느릴지라도 배려를 기반으로 한 단단한 관계 없이는
그 어떤 성장도 사상누각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아프게 겪은 사람들입니다.

발행인 김 영선.



SIDE B

CAFFE BENE

홈페이지 www.caffebene.co.kr
인스타그램 @caffebene_official
페이스북 /caffebene_official

발행인 김영선
편집장 류은우

Communication
ewryucopy@caffebene.co.kr
02-3438-6854

주소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5, 8층

제작	카페베네
창간	2020년 11월 23일
인쇄	오닉스인터내셔널

에디터	류은우	ewryucopy@caffebene.co.kr
디자이너	김규리	gyul@caffebene.co.kr
	이혜명	hyem@caffebene.co.kr
글	류은우	ewryucopy@caffebene.co.kr
기고	이보라	iboibo@caffebene.co.kr
	이지연	macarondaisuki@naver.com
	이은송	eunsong0423@naver.com
	김영선	
포토그래퍼	김하영	deepbluc@naver.com
	이보라	iboibo@caffebene.co.kr
그림	정가현	menthatea@naver.com
폰트	사용	Mapo 마포나루/금빛나루
	서체	나눔 손글씨체
		빙그레 싸만코체
		G마켓 산스
		조선일보 명조